성령충만의 가다 서다

(행5:1~11)

1.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령충만의 가다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성령충만의 가다 서다’

‘가다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요즘 같으면 벚꽃놀이가 한창입니다, 이곳 강릉도 벚꽃놀이 장소로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몇 군데 중 한 군데인 것 같아요.

이럴 때가 되면 주일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영동고속도로 귀경길이 아주 꽉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뉴스를 들어보면, 고속도로 상황에 대해서 리포터들이 보고할 때, ‘벚꽃놀이 귀경길 영동고속도로는 지금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 5시간이 걸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다 서다’는 꼭 교통에 관한 상황보고에서뿐만 아닙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안철수 씨와 문재인 씨가 야권후보 단일화 때문에 서로 협상을 할 때에도 안철수 씨가 너무 미온적으로 임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일화협상 가

다 서다를 반복한다.'
또, 경제에 대해서도 올해 스위스 다보스의 경제포럼에서 헤지펀드의 거물이라고 하는 조지 소로스라는 분이 '그리스 문제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유럽의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파국이 임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났다, 1단계는 극복이 되었다. 그런데 전 세계 경제가 이제 경제성장이라는 2단계로 진입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로스가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어 서있는 것보다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정치계의 단일화협상이건 고속도로의 귀경길이건 경제회복상태건 '가다서다'라는 말을 할 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지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귀경길 같으면 서울이 목표지점이고, 정치협상 같으면 단일화가 목표지점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경제가 성장단계로 회복이 되는 상태가 목표지점입니다.
그러므로 가다 서다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궁극적인 목표지점이 있어서 그 목표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향하고 있다는 게.
가는 속도는 더디지만 목표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성령 충만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현상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이 강력했던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상 이렇게 강력하고 급속히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서 '사탄 충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듯 강하고 급속한 성령 충만에 의해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완전히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자체가 대지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교회 안에서 놀랍게도 사탄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 '가득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2장 4절과 4장 31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충만한 거예요.

‘네 마음에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여’라고 하는 게 사탄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기가 막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즉사해버립니다.
사탄 충만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고 즉사합니다, 무서워요!
그 당시 교인들이 무섭고 두려워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을 대하는 2000년 뒤의 저도 두려워요.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즉사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
또 설령,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하더라도 좀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사탄이 충만한 아나니아가 이마에 험상궂은 뿔이 돋은 게 아닙니다.
사탄이 충만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서에 나온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의 광인과 같은 미치광이 같은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재산을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아 그 중에서 얼마를 남겨두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많은 사람, 전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고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으로 갖다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교회 안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재산을 팔았고 그리고 일부만 갖다 바쳤습니다.

이러기는 쉽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교회에 바쳐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당 건축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목 놓아 외치는 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세로 바꾸고 전세로 있는 사람은 월세로 바꾸기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건축헌금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해요, 아나니아만큼 하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즉사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사탄 충만의 결과인데, 도대체 사탄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기에 이렇게 즉사해버렸습니까?

사탄 충만을 성령 충만과 비교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장까지의 성령 충만, 바로 마지막에 바나바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밭 판 값 전부를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는 얘기와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과 사탄 충만의 내용이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 충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구름 위의 하늘, 그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아버지와 승천하신 주님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보다, 심지어 내 몸보다 앞선 현실로 내 마음에 가까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을 내 마음이 대하려고 해도 하늘나라를 먼저 거치고 몸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미 하늘나라의 기운을 쐰 마음상태로 내 몸을 대하고, 내 가족을 대하고, 내 일을 대하고, 내 인생을 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에요.
이렇게 하늘을 제일 처음 현실로 내 마음이 갖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땅이 진동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안정된 삶을 구축할 의욕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의욕이 생기지도 않고,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도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안정감을 갖고 평강을 갖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늘이 기반이 됩니다.
내 마음의 안정감과 평강과 만족과 기쁨의 기반이 하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통장이 안정감의 기반이었고, 잘돼가는 사업체가 안정감의 기반이었고, 집 한 채라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놓였었는데, 하늘이 기반이 되고 보니까 이 땅에 있던 내 것들이었던 것들을 내 것이라고 붙잡을 필요가 하나도 없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써 내 아버지가 돼주시고, 지금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천지 안

에 살 때에, 내 것으로 굳이 갖고 있으면서 안정된 마음을 찾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성경말씀이 돈과 재물과 집과 재산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갖게 됨으로써 땅의 소유들이 더 이상 안정감의 기반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땅을 팔고 소유를 파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가 흉내를 내게 됩니다.
재산을 팔았어요, 일부만 바치게 됩니다.
이때 아나니아의 문제는 뭡니까?
아나니아의 문제는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 거짓말의 의미가 뭐예요?
성령 충만은 사도들에게 급격하고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성령 충만이 급격하고 강력하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도바울의 경우 아테네에서의 선교가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패라는 것은 아테네에는 교회를 못 세운다는 의미에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에 와서 머물 때, 사도바울이 굉장히 심약해지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마음이 갇혀버립니다,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해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밀물과 썰물 같아서, 성령님이 강하게 밀려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는가 하면, 썰물처럼 쭉 빠져나가서 완전히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삶 속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지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길은 정해진 목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성령 충만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강림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고 신속하게 임하지 않더라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이 되었다가도 반복돼서 약해집니다.
그래도 가다 서다의 과정을 밟으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뭡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통장을 기대고 있는 이 마음이 싹~ 없어지고, 집 한 칸이라도 있어서 안심이 되는 마음이 없어져서, 집 대신에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 돈 대신에 아버지의 뜻, 돈이 없어서 못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없는 것이고, 내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뜻만 있다고 하면 돈 없어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고, 어떠한 눈에 보이는 보장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연결되어서 보장이 되시므로, 어떤 이 세상의 보장도 손으로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 성령 충만의 표징입니다.
이런 표징이 내 삶에도 나타날 때까지, 초대교인들이 유무상통할 때 재산을 판 것과 같은 표징이 나타나는 그런 성령 충만의 지점까지 나는 가야 된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합니다, 다~ 팔았다고.
다~ 팔았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표징이에요.
목표점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버림으로써 목표지점을 삭제해버립니다.
가야 될 성령 충만의 목표지점을 제거해버립니다.
팔지 않아놓고서 다~ 팔았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렇게 얘기했으면 즉사는 안 했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여, 재산을 팔기는 팔았는데 내 마음의 믿음이 다 바칠 수가 없습니다, 노후가 걱정이 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늘나라가 내 마음의 평강과 안정의 기반이 돼있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이 적은 믿음에서 그저 일부만을 바칩니다.'
이랬다 그러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기도해주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하늘나라가 이 마음에 이 모든 재산을 다 바쳐도 아무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만큼 강력하게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가 이들에게 기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는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나의 평강과 안정의 기반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돈을 다른 데에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라면 그럴 수도 있지요.
성령 충만해서 자동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동차가 내게 있음으로써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면 자동차를 주실 수도 있지요.
꼭 교회에 바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바쳐야 되는 율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땅을 누가 팔라고 했느냐, 또 땅을 판 돈을 다 바치라고 했느냐? 네 마음대로 하는 거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 주위에서 바나바라든지 동료교인들이 다 바치는 걸 보면서 그렇지 못하는 나를 본다면 목표로 삼으면 되지 않느냐?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안정의 기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늘을 안정된 기반으로 획득한 저 성령 충만의 상태를 목표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가다 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함으로써 성령 충만으로 향하는 목표지점을 제거해버리느냐?

그러므로 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에서 네 스스로 방향을 틀어서 딴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탄 충만이었다 이겁니다.
사탄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 것을 완전히 버리고도 안정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 하늘기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사탄 충만의 징표는 뭐냐 하면 성령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 세상 것들을 많이 갖고 많이 쌓아야 내가 안정될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탄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무상통의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낮아져도 상관없고 갖고 있는 것조차 다~ 놔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요한 곳에

다~ 쓸 수 있어서, 나는 완전히 빈 몸이 되어도 아무런 상실감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상황까지 교회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지점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거꾸로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목표지점을 아예 꺾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증표가 바로 유무상통이라는 거예요.
유무상통이 율법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 바쳐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법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증표에요.
이 성령 충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증표가 그거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과연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다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분만 계시면 안정된 마음으로 갈 수 있느냐를 보고, 아니면, 아니라는 나 자신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그 지점을 향해 가다 서다를 반복하더라도 소로스의 말대로 안 가고 멈춰있는 것보다 낫고, 방향을 틀고 있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유무상통이 내게서도 가능할 수 있게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목표의식을 상실하게 되면 사탄의 충만함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의 충만함으로 향하는 이 길을 피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비록 가다 서다를 반복하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날이 갈수록 두터워지고, 임재하심의 층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수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서 놓아버린 겁니다.
어떡하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비록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느린 속도일지라도 성령 충만을 향해 갈 것이고, 하늘이 기반이 되는 지점까지 갈 것이고,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지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을 향해서 날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할지언정 목표를 바꾸지 않고 가는 구원 받은 하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성령 충만의 지점을 향하여 비록 가다 서다를 반복할지언정 방향을 바꾸지 말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안정된 기반을 향해 마음이 돌려질 때, 이미 우리는 사탄 충만의 길로 들어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